



**제비나비 꿀 찾아 날갯짓** 제비나비들이 15일 강진군청 광장에 화려하게 핀 사피니아 꽃에서 꿀을 따느라 분주한 날갯짓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은 '제41회 강진청자축제' 기간에 명품 강진청자를 파격적인 가격에 파는 '30% 특별 할인행사'와 '이벤트 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할인행사는 오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 간 강진청자축제 행사장 내 명품관과 개인요 판매장에서 운영한다. 청자박물관(강진관요)과 지역 31개 개인요 업체 모두 참여한다. 매병, 주병, 향아리, 머그잔, 식기, 다기, 원샷 잔(술잔), 화병 등 모든 청

### 강진청자 30% 할인 판매합니다

축제기간 매병·향아리 등...즉석경매 행사도

자작품을 30% 할인한다.

또 축제 기간에 청자전시판매관에서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 존'을 운영한다.

이벤트 존에서는 1차례에 15명씩 매일 3회 추첨을 통해 청자전시판매

관에서 청자를 살 수 있도록 1인당 3만원 상당의 경품권을 제공한다. 또 매일 3차례 정상 판매가의 50% 할인액에서 시작해 호가경매(呼價競賣) 방식으로 하는 즉석경매를 진행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인 '제41회 강진청자축제'는 오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청자촌 일원에서 열린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축제에

명품청자를 선보이고자 다양한 디자인의 작품제작에 주력하고 있다"며 "여름휴가 때 강진청자축제장을 찾아 천년의 신비를 체험하고 좋은 작품도 많이 구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품청자를 선보이고자 다양한 디자인의 작품제작에 주력하고 있다"며 "여름휴가 때 강진청자축제장을 찾아 천년의 신비를 체험하고 좋은 작품도 많이 구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축제에

## 여름방학은 '영어캠프의 계절'

전남도·교육청, 초·중생 2000여명 6개 대학서 체험

전남지역 초·중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국내외 영어 체험 캠프에 참여한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4일부터 8월14일까지 20일간 나주 동신대를 비롯한 도내 6개 대학에 캠퍼스를 설치해 초·중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영어체험캠프에는 그동안 9200여명의 학생들이 수료했다.

올해도 도내 초·중학생 2016명이 사교육비 부담없이 원어민과의 밀착수업으로 살아있는 영어를 체험하게 된다.

특히 학생들이 원어민 강사와 24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꾸몄다. 또한 초·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쇼핑, 댄스, 과학 등 다양한 주제별 부스체험과 서바이벌 게임, 미니올림픽, 골든벨올리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할

원어민과 밀착 수업

쇼핑·댄스·과학 등 다양

나주시는 미국 연수 마련

계획이다.

캠프 참가 학생은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 이달 초 최종 확정했다.

원어민강사는 전남도와 교육교류 협약을 체결한 미주리대, 애리조나주립대 등 미국 명문 공립대에서 시험을 통해 선발된 90명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 지도와 생활관리 분야는 경험많은 도내 현직 교사들이 직접 총괄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캠프 운영이 기대된다.

실제 영어체험캠프가 도 교육청 초·중등 영어교육 전문 연구자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도내 초·중등 현직 교사들이 직접 운영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실 캠프보다 체계적이고 탄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참가학생 중 성적 우수 학생

들은 겨울방학 중 1개월간 미국 포틀랜드주립대에서 어학연수를 받게 된다.

나주시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영어체험캠프를 마련했다. 나주시는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4주간 미국 웨네치 밸리대학에서 실시하는 어학연수를 위해 이날 오전 시청앞에서 환송식을 가졌다. 연수를 떠나는 황신석군(금성중2)은 "미국에 직접 간다는 설렘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미국인과 함께 지내면서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실력을 쌓아오겠다"고 다짐했다.

시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3년째 실시하고 있는 해외 어학연수에 참가한 연수생은 벌써 100여명을 넘어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수는 학생들이 현지 문화를 체험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어학프로그램, 스포츠, 음악, 문화체험 활동 등으로 짜여졌다.

/정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나주=송영희기자 ycsong@



15일 오전 연수단 출발행사에 참석한 임성훈 나주시장과 학생, 학부모들이 성공적인 연수를 다짐하고 있다.

## 여수 '교육국제화특구' 청사진 나왔다

市, 종합계획 확정...자율시범학교 등 9개 사업 추진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지정한 여수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여수시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교육국제화인프라 등 3개 분야 9개 단위 사업을 2017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 분야로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학사운영 등 자율권

이 부여되는 국제화자율시범학교 지정·운영과 전담교원 연수, 기타 영어 캠프 운영 등의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산업인력양성 분야는 지역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글로벌 맞춤형 테크니션을 확대 운영, 국제해양관광레포츠 산업인력 양성, 글로벌 석유화학 플랫폼 엔지니어링 인력양성 등 국내·

외 취업사업이 추진된다.

또 교육국제화 인프라 분야는 지역민의 평생교육 기관이자 국제화 역량제고 사업의 총괄 역할을 전담하게 될 여수국제종합교육센터 건립 등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수시는 시민의견 수렴 등 향후 절차를 거쳐 세부적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오는 8월 이후부터 국제화자율시범학교 지정·운영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곡성군, 中 보타구 중학생 25명 초청 홈스테이

곡성군은 15일까지 3박 4일간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보타구 중학생들을 초청해 홈스테이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겨울 곡성군 중학생들이 보타구를 방문해 홈스테이를 실시한 데 대한 답방으로, 보타 제2중학교와 심가문 제1초급중학교 학생 25명을 비롯한 주경정 교류단장, 인솔교사 등 31명이 참여했다.

곡성군에선 석곡중 강성수교장과 곡성중, 석곡중, 옥과중 학

생과 교사 등 30명이 함께 했다.

보타구 중학생 홈스테이단은 3일 동안 자매결연 학생의 가정에 한·중문화교류를 접하는 시간을 가졌고 레일바이크(사진), 증기기관차 탑승, 레프팅 등 신나는 체험을 했다.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환송행사에서는 곡성의 학생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문예공연을 선보였고 양 지역 대표단과 학생들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선행의 정을 나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화순군 노인일자리 사업

1200여명 대상 소양교육

화순군은 15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대표자 및 화순문화원, 화순군 여성방법대, 지체장애인협회 화순지회, 화순노인복지센터, 환경21세대화순지부 등 공익형·복지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1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웃음문화연구소 남영안 소장의 '행복한 노후생활의 발견과 자기관리'와 아이나라운동연합 장원재 대표의 '웃음 건강을 통한 행복한 미래 인생 설계' 강의는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 자세와 활기찬 노후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화순군은 관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올해 총 1228명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멘토에 갈증나고  
힐링에 목마르는 시대!

그들을 위한  
명쾌한정답 프로그램!

# 명랑 해결단

매주 월요일 밤 11시

이운석 이유리 서경석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 A